

우리의 다시 살길(2)

韓稚振

三

以上の論意와 如히 살나면 죄가 잇서야 살터인데 이 죄를 배화주는 現代 教育機關은 이미 죄가 업는 者에게는 許諾안흐니 엇더케 해야 生活의 죄를 배화 살 수 잇슬가? 그 죄를 꼭 學校에서만 배호는가 또한 現代 教育機關들이 가르쳐주는 生活의 죄, 즉 智識(機具이라야만 生存할 수 잇슬가? 現代人이 認識하고 잇는 그 만한 죄로써야만 꼭 살 수 잇다하면 그 죄를 現下□者로서 엇더케 배호는가? -이러한 모든 問題를 討議하고자하는 것이 以下 얼마간 더 말할 題目이다. 以上 여러 問題를 總合하면 單 二種에 不過할지니 一, 現代教育이 주는 生活의 죄, 즉 器具만으로써 生存할 수 잇는가? 或 其外 別種의 죄가 잇다하면 그것은 무엇일가하는 것과 二, 現代教育이 주는 그 죄를 꼭 배화야 남과 가티 生存競爭을 할 수 잇는데 現代의 弱者로서는 그것을 배호기 甚難하니 엇더케 해야 그것을 能히 배화 살 수 잇슬가하는 것이다. 吾人이 이제 論하고자하는 問題는 第二種의 問題이니 즉 엇더케 해야 現代 教育(智識)일망정 바더볼가하는 難關이다. 내가 問題를 論함으로써 就學難識者的 就職難에 싸진 우리 同胞에게 多少 影響이 잇스리라하는 것은 내 取히 바라지도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나의 眞理探求 上 朝鮮人의 現狀에 對한 一個의 私見인 것에 不過함을 말해둔다.

入學難이란것은 먼저도 말했지만 朝鮮 內地에서뿐 아니라 무엇에든지 남에게 □下치 안는 이 米國 內地에서도 入學難이 有한 바 學□도 學□러니와 各學校의 行政規律이 度外로 多端□正하야 如干한 資格과 性格으로는 如干한 學校에 入學하야 그 要求하는 바를 遂行키 甚難하다. 이러하고 보니 無產國의 無產民에게는 더 말할 수 업는 入學難이 存在하게 될 것은 理論을 부처 볼 餘地도 업겠다. 余는 □談하기를 以後로 去益甚할 줄 알며 各 教育機關은 오즉 有產者만 通學케 될지며 敎師職까지도 資格은 如何間 有產者 아니면 有權者가 될 줄 안다. 或 現下에 如此한 社會造織이 不遠間 □改되고야 말리 라하드래도 以上에 示한 入學難 가튼 것이 極度에 達한 後가 아니면 아니

된다. 이것은 凡 事物의 所謂 慣性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. 이런 故로 現 制度가 □極도로 延長하다가 □改界로 □入할 그 期間에 滅亡치 안코 維持하야 갈 것이 現下의 弱子들의 一大問題가 되는 것이다. 이 生命維持가 무엇보다 現下弱子들의 考慮할 急先務라 한다. □□次 □改할 世態보다 當場 生命維持할 것이 成功의 第一의 要求일 것이다. 그러나 以上の 말과 如히 生命維持에 必須히 忒라는 힘이 잇서야 할 터인데 그 힘을 주는 教育機關 基地□ 備機關은 弱者에게 許諾치 아니하니 이야말로 絕命할 外에 他道가 업지 아니하냐? 그는 現 世態에 依하야 無產者 被□迫로써 有產者, 有權者의 機關에 역지로 드러가날냐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.